



금융안정위원회의 보험권 자본규제 강화

김진억 수석담당역

■ 금융안정위원회¹⁾(Financial Stability Board, 이하 FSB)는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자본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, 특히 금융권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자본기준을 마련하고 있음.

- 금융안정위원회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²⁾(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, 이하 G-SIFIs),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(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, 이하 G-SIB)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(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, 이하 G-SII)를 선정하였고 자본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.
 - 특히 G-SII에 대해서는 추가적 자본을 나타내는 대규모 손실준비금(Higher Loss Absorbancy, 이하 HLA)과 기초자본요건(Basic Capital Requirement, BCR) 도입을 추진 중임.³⁾
 - HLA는 2019년부터 G-SIIs에 적용되며, HLA에 대한 권고안이 2015년 후반에 개발 예정
- G-SIIs와는 별도로 IAIS는 2010년 7월부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험그룹(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, 이하 IAIG) 감독에 대한 공통감독체계(ComFrame)와 자본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음.⁴⁾
 - 그룹차원의 보험자본기준(Group-wide Insurance Capital Standard, 이하 ICS)이 2016년 말까지 개발되어 공통감독체계에 포함될 것이며, 2019년부터 모든 IAIG에 적용될 예정임.
- 기초자본요건(BCR)과 보험자본기준(ICS)은 보험회사의 자본규제 강화와 다른 업권과 비교를 용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.

1)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으로 전 세계 20개국(G20)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장들이 2009년 설립하였으며, 회원은 FSB의 전신인 금융안정포럼(FSF) 회원국, G20 회원국, 스페인과 유럽위원회 등임.

2) FSB는 G-SIFIs를 “기관의 부실 또는 실패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여러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규모와 중요성, 그리고 글로벌 상호연관성을 갖는 기관”으로 정의함.

3) BCR 계산을 위한 방법론은 2014년 말에 개발 예정임.

4) 공통감독체계(ComFrame)는 IAIG에 대한 국제적 감독요건임.

1. 기초자본요건(Basic Capital Requirement, BCR)

-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(IAIS)는 6개의 기초자본요건(BCR) 개발 원칙을 마련하였고 2014년 11월 G20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.

- BCR 원칙 1: 비보험 리스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 리스크 등 주요한 보험리스크를 반영하여야 함.
- BCR 원칙 2: 권역별 비교가능성. 보수주의(conservatism)와 감독자 재량에서 초래된 왜곡 등 기타 왜곡들을 최소화해야 함.
- BCR 원칙 3: 위기적 거시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함.
- BCR 원칙 4: BCR의 설계는 실용적이고 실무적이어야 함. BCR의 표현양식은 간결하고 직관적이지만 결과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함. BCR은 중요한 이슈에 대한 유효하고 강건한 결과를 얻으면서도 최소한의 척도와 자료를 이용해야 함.
- BCR 원칙 5: 비교 대상이 되는 다양한 보험, 비보험 금융회사에 대해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함.
- BCR 원칙 6: 투명성과 공개된 자료 이용 최적화.

2. 보험자본기준(Insurance Capital Standard, ICS)

- 공통감독체계의 계량적 부분인 보험자본기준은 2019년에 시행될 계획임.

- IAIS는 2016년 말까지 ICS의 개발을 완료하고 감독당국 및 IAIG와 2년간의 시험과 조정을 거친 후 2019년에 시행할 예정임.
- BCR 또는 ICS가 권역별로 실제 중심의 보험자본요건을 대신할 것 같지는 않지만 금융권역별로 지급여력 자본여건과의 비교와 검토가 있을 것임.
 - BCR 및 ICS는 각국 지급여력규제에는 구속되지 않으나 리스크를 갖는 실체와 그룹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모든 금융리스크와 비금융리스크를 확인 및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준임.
- IAIS는 권역별로 보다 비교가능한 자본측정방법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, IAIG 자본적정성에 대한 공통된 이해는 감독당국 간 감독 협조와 조정을 강화할 것이고 이는 또한 당사국 감독당국이 그룹차원 감독당국의 결정과 분석에 신뢰를 갖게 할 것임.

- BCR과 ICS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형 보험회사에 적용될 계획이나 장기적으로 모든 보험회사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,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.

- 은행의 자본규제인 BIS 규제도 초기에는 대형 은행에만 적용되었으나 전 세계 은행으로 확산되었던 경험이 있으며, 또한 금융안정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.

(CIPR, IAIS 등)